



http://council.gangwon.kr

강원 의정

월간 강원의회 제135호
2015년 12월 28일 월요일
발행처 : 강원도의회

발행인 강원도의회 의장 김시성
편집인 강원도의회 사무처장 한만수

Gangwon Council Activities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 강원도의회 TEL. (033)249-5169 FAX. (033)249-5023 kis1207p@korea.kr 인쇄 : 강원일보사 출판기획국

送舊迎新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서울~속초간 고속철도 & 여주~원주간 복선전철 추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

2015년 한해동안 보내주신 도민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도정 현안해결을 위해 강원도의회가 더욱 앞장서 뛰겠습니다.

제 135호
지면안내

-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 질의응답 2·3·4면
- 5분 자유발언 5·6면
- 의회운영위원회 7면
- 기획행정위원회 8면
- 사회문화위원회 9면
- 농림수산위원회 10면
- 경제건설위원회 11면
- 교육위원회 12면
-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13·14면
- 의원동정 15·16면

성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GANGWON PROVINCIAL COUNCIL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 질의응답



진 기 엽 의원
농림수산위원회/횡성군 제1선거구

Q 현재 소규모학교 통폐합과 관련, 교육감께서 주장하셨던 것이 673개 학교 중 270개 학교가 통폐합 위기에 놓여있다, 농촌이 황폐화 된다고 주장하시는데?

교육감 지금 정부에서 요구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그렇습

Q 그럼, 이런 효율화 방안대로 했을 경우 2016년도 270개 학교 중 몇 개 학교가 통폐

합 대상인지?

교육감 통폐합을 인위적으로 하지 않을 것임

Q 전국적으로 6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가 2,000개에 달하고 교육부 통계를 보면 연간 40여개 정도를 통폐합하고 있고, 통폐합의 장단점은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함. 17개 시도에서 평균적으로 2~3개 정도 통폐합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강원도는 1~2개 정도면 많이 하는데?

교육감 그러한 경우 어쩔 수 없이 통폐합을 하게 되는 것임

Q 통폐합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학교 설치·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님 소관임, 교육감님의 고유사무이고, 지역에서 99%가 찬성을 하고 단 1%가 반대를 해도 통합을 안 시키면 되는데?

교육감 정부에서 국가재정 전략회의를 하면서 지방교육재정효율화 방안이 나왔고,

그때 학생 수 비중을 교부금 산정 기준으로 해서 현행 30.7%에서 50%까지 올린다고 했음,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통폐합을 강제하는 것임

Q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 3~5세 누리과정 보육예산을 도교육청이 부담하게 되면 666억 원의 재정부담이 발생됨, 교육재정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한 교육부의 잘못된 판단도 책임이 있지만, 이러한 내용을 사전에 대비하지 못한 도교육청의 책임도 크다고 보는데?

교육감 무엇을 대비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감

Q 그러니까 긴급재정을 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찾아내고 무상급식 예산을 올리지 말고 하는데 심혈을 더 기울여야 되는거 아닌지?

교육감 보육은 교육청 소관이 아니고, 교육청은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곳임



남 경 문 의원
교육위원회/정선군 제2선거구

Q 폐특법에 있어서 부족했다든가 아님 참 잘되어 있다든가 하는 평가를 하신다면, 실무국장으로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경제진흥국장 폐특법 제정을 통해서 전국 유일의 내국인 출입 카지노가 허용이 되어 그것을 통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여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지만, 개발 방식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되지 못한점과 주민의견 수렴이

부족해 대체산업 육성, 주민소득 창출에는 투자된 효율에 비해 성과가 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함

Q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폐광지역의 지금 투자된 예산이 어느정도 된다고 보는지?

경제진흥국장 강원랜드 이익금의 일부를, 법인세 차감 전 이익금의 25%를 폐광지역 기금으로 받은 것만 1조 1,000억 원이 넘고, 그동안 진흥지구사업, 개축지구사업을 포함하면 2조 원 이상은 투자가 되지 않았나 생각함

Q 지금 교통비는 고속도로로 달리는 차가 제일 싸고 그 다음에 4차선, 2차선, 비포장을 달리는 사람들이 제일 비싼 요금을 내야 하는 형태로 되어 있음, 강원도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을 확보해서 거기서 나오는 세수를 확충, 다시 복지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은 가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의 정책 결정 방

향을 바꿔주실 수 있는지 주문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길?

도지사 도정도 영서지방은 어느 정도 성장세에 올라섰고 영동지방도 올림픽을 따라서 인구 감소가 줄어들고 있음. 북부지방은 춘천~속초 간 철도가 되면 어느 정도 방어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마지막 남은 도정의 핵심지역이 폐광지역이 되겠음. 폐광지역을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시작했다는 보고를 올림

Q 교육감님께서 하셔야 될 역할은 보육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의무라고 보는데?

교육감 예산을 세울 재원이 없고, 법률 위반이기도 함

Q 재원이 없는데 교육부에서 의무적으로 떠넘기기 형태로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예산은 줄여놓고 명목만 표시한 것임. 이것을 법률위반이라고, 교육부장관도 말했다



정재웅 의원
경제건설위원회/춘천시 제5선거구

Q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가장 유력한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도지사 제일 좋은 방법은 양질의 기업이 유치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유치된 기업의 지역경제 기여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수치적으로 계량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고용창출계획 대비 현재 고용인원이 57%밖에 안되고, 막대한 보조금 투입에 비해 고용창출 효과, 지역경제

과급효과 기여도가 매우 미흡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강원도만의 고유한 자산으로 특성화된 기업들을 만들고 키우려는 경제정책의 방향을 새롭게 수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말해 주고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도지사 강원도로 오는 기업들 중에 한 30~40% 정도는 한계기업들이 오고 있음, 수치보다 질이 중요함

Q 명예도지사의 역할이 공적행정의 역할까지 규정할 수 있는지?

도지사 명예도지사라는 것은 제도화가 되기 전에 외국에 있는 일종의 *키친캐비닛으로, 공식적인 것이 아니기에 임금을 드리거나 공식 직함을 드리는 것이 아닌 것으로 공적행정의 역할까지 규정할 수는 없음

Q 소방헬기구매위원회라는 것을 조직해서 소방헬기를 구매하는 다른 시도본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소방본부장 제주도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제주도는 조종사 출신 도의원이 위원회에 참석함

Q 소관 상임위에 상시적 보고가 이루어질 때 오해나 의문이 없이 진행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문제의식에서 말씀드리는 것임, 더욱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 상황에서는 이런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 아닌지?

소방본부장 지금까지 강원도에서 3대의 헬기를 구입하면서,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규격심사위원회는 공개적으로 했음, 그렇지만, 자체로 구매위원회를 구성한 적은 없고, 거의 대부분의 시도가 구성을 안 하고 있음

* 키친캐비닛 : 대통령과 어떠한 사적 이해나 정치 관계로 얽혀 있지 않아 여론을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한다는 의미



최성현 의원
기획행정위원회/춘천시 제2선거구

Q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지방채 발행이나 보증, 채무부담행위를 할 때는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있음, 그런데 엘엘개발에 채무보증을 하면서 2,000억원이 넘는 돈을 의결을 받지 않았는데, 말이 되는 것인지?

도지사 그렇다면 문제인거 같음, 다시 확인해 보겠음

Q 무능력한 총장 때문에 도립대학은 대학

평가에서 E등급까지 내려가 강원도의 손실액은 얼마인지도 모르고, 학생들의 질은 떨어지고,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을 보정하고 결국은 새로 총장을 임명하기까지 6개월 이상 걸렸는데?

도지사 그것은 저희들이 도립대의 교수님들께서 자율적으로 결정을 해 보시고, 추천도 해 보시고, 저희가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겠다는 과정이 길었음

Q 여성수련원장의 경우도 인사위원회가 선정한 최종 2명을 거부하고, 애초에 들어와 있던 사람이 임명 되었음, 중요한 것은 이 제라도 원칙을 세운 객관적인 인사시스템을 가동해 주시기 바람

도지사 그렇게 하겠음

Q 우리 아이들이 수능을 보고 나면 전국에 있는 아이들과 경쟁을 해야 됨. 자식이 경쟁에서 이기길 바람, 그런데, 약자를 위해 모두가 평등해야 되는 그런 논리가 어디있는지?

교육감 '모두를 위한 교육'은 유네스코에서도 쓰고 있는 용어임

Q 그것은 용어일 뿐이고, 현실은 그렇지 않음, 강원도교육이 현실과 떨어져 있는거 아닌지?

교육감 누구 하나 버림받는 아이가 없는 교육을 하겠다는 의미임

Q 모든 시도평가 부문에서 꼴등임. 거기에 수반되는 교부금 못 받은 액수는 큰 데?

교육감 2012년, 2013년 성적이 좋지 않았음, 그러나 올해 같은 경우는 교육현장 지원역량 강화와 시도교육청 특색사업 영역에서 우수교육청으로 선정이 되었고, 2014년부터 조금씩 좋아지고 있음, 교부금 차등지원에 관해서도 약간씩 상승하고 있지만, 이번에 교육부가 국정감사를 받으면서 이것은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정책통제의 수단으로 쓰이기 때문에 차이를 최소화 시키는 것으로 정책이 전환되고 있음을 말씀드릴



김기철 의원
농림수산위원회/횡성군 제1선거구

Q 도내 폐광산이 몇 개인지와 폐광을 하게 되면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되는지?

경제진흥국장 도내 폐광산은 822개가 있고, 폐광이 되면 폐광산에서 나오는 침출수, 비산먼지, 지방침하 우려 단지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광산피해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어 이 법에 따라 제반조치들을 취하고 있음

Q 요즘 전통시장 살리자고 다방면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강원도가 시장 살리기 그리고, 우리 도민들의 구석구석 삶의 모습을 촘촘히 살피게 된 대표적인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서 감사를 드림, 그동안 '이렇게 일을 해보니까 효과가 있다'하는 계량화된 지표 같은 것이 있는지?

경제진흥국장 시장의 성과를 수치로 나타내기에는 어렵고, 고객들이 찾아 나서고 상인분들이 시장을 살릴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을 수 있는 시장들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대표적인 성과로 말씀드릴

Q 학교가 지나치게 소규모이다 보면 학교를 꾸릴 수가 없어 통폐합을 하는데, 학생 수를 유지하는 방안을 찾아볼 수는 없었는지?

교육감 지금 에듀버스 사업을 진행 중인데, 2차 사업으로 도심에서, 즉 큰 학교에서 작은 학교로 갈 때의 통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에듀버스 사업을 실시해서 도심에 있

는 과대·과밀 학교에서 작은 학교로 학생들이 가게 되면 적정규모의 학교로 분산해서 가르칠 계획이 있음

Q 어쩔 수 없이 학교가 통합이 되었을 때 순기능은 무엇인지?

교육감 예를 들면, 사북초와 사음초의 통합, 함백중·고와 함백여중·고의 통합 같은 경우 같은 지역 내에서 작은 학교를 통합함으로써 교육과정 운영의 원활과 여러 가지 인센티브 부여에 있어서 좋은 방향으로 통폐합이 되었다고 생각함

Q 그렇다면 통합이 되었을 때 역기능 혹은 단점이 있다면 어떤것인지?

교육감 멀리 떨어져 있는 학교와 학생들을 통폐합하게 되면 통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작은 학교만이 가지는 장점도 있음. 그래서, 인위적인 통폐합은 지양하되 발전적인 통폐합은 할 수 있음



김규태 의원
경제건설위원회/동해시 제1선거구

Q 최근 5년간 강원도 관리항만과 비교하여 동해 묵호항에 지원된 강원도 예산은 어느 정도인지?

환동해본부장 도내의 항만은 총 6개로서 국가항만 1개소와 지방항만 5개소를 운영하고 있음. 도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지방항만 4개소에 대해서 5년간 항만 개발과 유지·관리 비용으로 921억원 투자, 호산항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민자로 6조 2,800억원을 투자, 개발 중에 있음. 국가 관리항만인 동해 묵호항은 중앙정부에서 최근 5년간 항만 개발과 운영을 위해서 134억원을

투자하고 있고, 동해항 3단계 개발사업 1조 6,000억원의 대규모 사업을 추진중에 있음. 또한 동 항만이 국가 관리항만이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 도에서 투자하는 사업은 없음

Q 강원도의 투포트 정책의 방향과 추진성과, 향후계획에 대해 말해 주시길?

환동해본부장 동북아시아 간에 운송되는 여객과 물류를 주도적으로 선점하기 위해서 동해항과 속초항 두 개항에 국제항로를 추진하고 있음. 동해항은 지금 점차 물동량 증가와 경영 개선이 되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고, 속초항은 자루비노와 훈춘 사이에 러시아 구역의 통관 절차가 복잡해서 항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앞으로 동해항과 속초항의 국제항로를 상호 연계된 환적시스템으로 구축하거나 동북3성과 나진으로 이어지는 제3의 루트에도 관심을 가지고 한·중·일·러 4개국의 상생발전과 강원도 해안물류 거점항만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활성화할 계획임

Q 동해 묵호항이 강원 경제에 미치는 영향

과 환동해권 물류 출구로서의 강원도 장기 발전계획에 반영 여부, 그리고 현재 진행상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길?

기획조정실장 2014년 동해 묵호항이 강원도 전체 항만 물류의 66%인 3,254만t 되었고, 이 항만을 통한 수출입 교역량도 한 2조 3,000억 정도, 톤수로는 1,500만t 되는 것으로 강원도 경제에서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음. 국토부가 수립한 항만물류계획 상 2010년에 한 2,800만t 됐는데 2020년을 보면 150%가 증가한 4,100만 t 정도로 늘어나는 것으로 됐음. 앞으로 상당히 가능성 있는 항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제3차 전국 무역항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음

Q 동해항이 제3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 대책은?

도지사 배후단지 지정에서 누락된 이유가 항만 인프라, 접근성, 그 다음에 토지가 부족하다는 점이 이유 중 하나였음. 다시 누락되지 않도록 준비하고, 경제자유구역청도 해제되지 않도록 기업들을 끌어들이고 선사를 설득해 가도록 하겠음

5분 자유발언

설악산 4개 시·군 오색케이블카 성공 공동 노력

제251회 정례회 / 2차 본회의 / 2015. 11. 24.(화)



남 평 우 의원
농림수산위원회 / 인제군

얼마 전 환경부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건설과 관련하여 조건부 승인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양양군, 인제군, 고성군, 속초시는 설악산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함께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인제군의 용대지구와 백담사 간의 케이블카 설치, 속초시의 모노레일사업 추진 등 설악산관광사업의 재도약을 위하여 각 시·군은 지역별 특성에 맞는 방안을 각자 수립하여 추진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관련 4개 시·군 간 균형발전을 이루어 공동의 결실을 맺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색케이블카는 단순한 운송수단을 넘어 관광소득을 증대시키고 발생한 수익을 연계사업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의 투자가 이루어질 때만이 비로소 가치와 효용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오색케이블카 건설에 따른 총생산 유발효과는 932억 원으로 추정되며 강원도 내 유발효과는 576억 원으로 산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효과들이 설악권 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소득증대, 문화적 혜택과 사회복지를 증대시키는 계기로 활용되어야 함과 오색케이블카사업을 통한 수익금은 일부를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에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정부는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대표적인 규제완화 및 설악관광정책으로 꼽은

바가 있습니다. 특히 2018동계올림픽 이전에 시범운행을 실시함으로써 침체된 관광산업을 되살리고 장기적으로는 오색집단지식지구를 국제적 관광지로 육성하기 위한 정비계획도 수립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상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설악권 4개 시·군이 설악권행정협의회를 통해 오색케이블카 설치에 따른 자치단체 간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호 협조해 나가야 하며 강원도 집행부 또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설악권 관광 활성화에 나서야 합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평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251회 정례회 / 3차 본회의 / 2015. 12. 16.(수)



진 기 엽 의원
농림수산위원회 / 횡성군 제선거구

교육감님!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보육서비스는 법에 명시된 명백한 교육입니다.

교육감님! 지자체 또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강원도교육청 예산 불용액은 2년 평균 643억 원에 달합니다. 최근 교육청 예산의 불용액만 따져도 충분히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보육료 29만 원, 학부모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이는 곧 어린이집 재원생 수 감소와 보육교직원의 감축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강원도의 미래를 책임질 4만 여 명의 아이들에게 동등한 교육기회를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금전적 문제로 어린이집도 못 보내는 부모님들 누리과정으로 도와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9,000여 명의 어린이집 보육교직원들, 교육감의 말 한마디에 따라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할 형편에 놓여있습니다. 교육감의 결정에 따라 4만 여 명의 아이들과 그 학부모, 9,000여 명의 보육교직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게 됩니다. 교육감께서 보편적 복지로 주장하시는 무상급식이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를 진정으로 추구하신다면

누리과정부터 시행하십시오. 진심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하신다면, 우리 학부모들을 조금이라도 돕고 싶으시다면, 열악한 여건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직원들을 생각하신다면 우선 시행하십시오. 지금은 아이들이 평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해 주어야 할 때인 것입니다. 보육료 29만 원에 잠 못 주무시는 학부모들을 생각해 주십시오. 도지사와 교육감은 최선책을 위한 용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누리과정부터 시행하십시오. 진심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하신다면, 우리 학부모들을 조금이라도 돕고 싶으시다면, 열악한 여건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직원들을 생각하신다면 우선 시행하십시오. 지금은 아이들이 평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해 주어야 할 때인 것입니다. 보육료 29만 원에 잠 못 주무시는 학부모들을 생각해 주십시오. 도지사와 교육감은 최선책을 위한 용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와 유산

제251회 정례회 / 3차 본회의 / 2015. 12. 16.(수)



구 자 열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 원주시 제4선거구

강원도는 올림픽 성공을 위해서 경제, 문화, 환경, 평화라는 4대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 그중 유일한 분단도인 강원도

에서 올림픽을 남과 북이 공유한다면 세계의 이목은 집중될 것입니다. 남북경색 국면마다 가장 큰 피해를 감소해 왔던 강원도가 평화올림픽을 통해 남과 북의 신뢰와 평화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탈바꿈된다면 이보다 더 큰 자산과 유산은 없을 것입니다. 2017년 테스트이벤트와 다음 해에 올림픽이 열릴 때 선수단과 관광객, 세계 각국의 언론인들이 자유롭게 남과 북을 왕래한다면 남북의 정치적 해빙기는 반드시 도래될 것입니다. 한반도가 안고 있는 분쟁지역으로서의 분위기를 반드시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계적인 이벤트인 동시에 평화적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민족통일을 위한 디딤돌 마련이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는 대회이미지 상승과 외국자본의 투자를 이끌어내 현재 정부가 고민하고 있는 국내경제 활성화에도 일익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에게 비극의 역사적 현장으로 각인되어 온 디엠제트가 세계인들에게 평화의 상징, 화합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피해를 입고 있

는 고성·속초 지역의 갈등도 해소될 것입니다. 이로 인한 경제적 활성화의 몫은 강원도민의 몫으로 남을 것입니다. 모든 현실은 상상에서 출발합니다. 남과 북이 함께하는 평창동계올림픽을 꿈꾸고 상상해 봅시다. 그 상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강원도와 도의회의 초당적 협력이 절실합니다. 정치·경제적인 최대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평화올림픽 실현에 도민분들의 지지와 성원도 필수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뉴허라이즌(New Horizons), 즉 새로운 지평을 여는 것입니다.

경포와 낙산 도립공원 해제 촉구

제251회 정례회 / 3차 본회의 / 2015. 12. 16.(수)



김용래 의원

교육위원회 / 강릉시 제3선거구

경포와 낙산 도립공원은 지난 '79년과 '82년 관광인프라 확충과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각각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지역발전을 더욱 앞당기리라는 큰 기대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당초 지정 목적과는 다르

게 난개발을 방지하고 환경을 보전한다는 명목으로 자연공원법에 따라 엄격히 재산권을 제한하고 규제하고 있어 주민들은 도탄에 빠져있습니다. 도립공원으로 묶여있는 지역주민들은 지난 30여 년간 재산권 행사의 제한과 인근 지역에 대한 차별 등으로 불만이 팽배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지역갈등의 요소로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시기가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강원도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 지난 2014년 도립공원 중장기발전방안 연구용역을 추진, 경포와 낙산 도립공원의 해제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9월 23일

강원도도립공원위원회를 개최하여 경포와 낙산 도립공원을 전면 해제하기로 결정하여 해제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해당 시·군에 알아본 결과 자연공원법 제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의 승인절차가 남아 있고 지난 11월 초 폐지 승인을 하였다고 합니다. 도립공원의 지정 관리권자는 강원도지사임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의 폐지 승인절차를 거치는 것은 정부의 행정규제 완화정책에도 역행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최문순 지사께 도립공원 관련 규제완화에 대하여 몇 가지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립공원 규제완화를 위하여 노

력하고 정부부처와 협의하여 도립공원 해제권도 광역단체로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환경부에 도립공원 해제 승인 신청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1개월이 경과되어도 해제 승인이 되었다는 소식이 없는데 이는 환경부에서 도립공원 해제 의지가 없거나 다른 의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지사께서 환경부에 도의 의지를 강력히 전달하는 등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도립공원 해제 이후에도 낙후된 경포와 낙산 도립공원 지역 내 기반시설 투자와 민자 유치에도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유재산을 활용하고 매각하는 일에 신중을 기해야

제251회 정례회 / 3차 본회의 / 2015. 12. 16.(수)



김기홍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 원주시 제2선거구

혁신도시 바로 앞 6만 1,674㎡의 공유재산에 평당 72만 2,000원 정도인 133억 2,451만 9,000원의 감정가액을 산정해와 매각계획을 의회에 제출하며 시작된 이 불씨는 지역간의 갈등으로까지 번졌었습니다.

고액의 드라마 제작비를 지원하고 부지를 저가로 임대해 활용하기로 했던 원 계획을 뒤집고 향후 활용방안과 가치가 무궁무진한 우리 미래의 땅을 어처구니없는 가격에 넘기려 하기에 강원도민, 원주시민으로서 상식선에서 생각하고 행동하자며 뜻을 모았던 원주권 도의원들은 개전 초반 오해와 왜곡, 매도에서 비롯된 집중 포화에도 불구하고 서로 팔짱을 끼고 최전선에서 맞섰고 끝끝내 막아냈습니다. 공유재산은 155만 도민 한 분, 한 분이 땅의 실소유주이시고 도백과 집행부, 의회는 일정기간 땅 관리를 명받은 관리인에 불과합니다. 관계

자 스스로 땅 이득도 보고 싶다고 실토한 우리의 미래 땅이 주인인 우리의 실리와 이익이 아닌 개인적 친분과 사정으로 외투기업 수의계약 방식으로 넘어갈 뻔했는데 이와 관련되었던 모든 분들은 지금이라도 반성하시고 앞으로는 공직자를 달리 이르는 공복으로서의 사명감을 다잡으시고 공직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부지 맞교환 등 내내 바람 잘날 없던 땅의 전쟁은 금번 회기 경자청 옥계지구 부지 매입으로 확전되었으나 의회는 확고한 논리로 또 한번 무고한 공급을 막아냈습니다. 도의 직접 공유재산은 아니지만

출자·출연기관 소유재산과 관련해 참하나GW 사무실과 추진 중인 사업들, 알펜시아 내 시내면세점 추진 등 심사숙고해 봐야 할 사안이 한 두 개가 아닙니다. 잉여부지 맞교환 등 공유재산 관리와 관련한 사안들이 줄을 이을 것입니다. 강원화폐 발행 중단 및 선회처럼 단독 혹은 극소수만의 정책결정을 멈추고 모든 공직자에게 진정한 의미의 자유로운 의견제시를 보장드린 후 이제라도 다수의 의견을 귀담아 들어 개인이 아닌 다수의 조율이 담긴 정책결정을 내린다면 땅의 전쟁은 땅의 제전이 될 것입니다.

오색케이블카 설치 국비는 확보했어야 한다.

제251회 정례회 / 3차 본회의 / 2015. 12. 16.(수)



장석삼 의원

농림수산위원회 / 양양군

최문순 지사님의 공약사업이자 우리 강원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지자체의 단순한 수익형 사업이 아니라 영동권은 물론 강원도와 대한

민국의 가장 핵심적인 선진국형 산악관광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강원도를 실질적인 국제관광일번지로 부상시키는 규제개혁의 모범적인 롤 모델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런 중차대한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앞두고 가장 중요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현실은 참담함 그 자체입니다. 우리 도민들의 피눈물로 일궈낸 오색케이블카사업이 조건부 승인이 났다고 해서 호락호락 국비예산이 수반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안일하게 대응한 집행부의 무능력에 도민들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자괴감

마저 듭니다. 오색케이블카사업의 조건부 승인 후 환경단체의 반발과 지속적인 법정투쟁을 예고하고 있는 마당에 과연 기재부가 손쉽게 예산을 확정해 주겠느냐는 가장 근본적인 물음에서부터 출발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우리 강원도가 그동안 백두대간보호법으로 인해 많은 지역개발에 제한을 받아왔던 것을 명분으로 정부를 설득해 벗어나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이 단순히 양양군과 강원도의 수익형 사업이 아니라 산악관광 활성화를 통해 침체된 관광경기를

부양하고 특히 2018년도 평창동계 올림픽의 중요한 관광인프라라는 논리를 체계적으로 완성해 주도면밀한 대응전략에 접목시켜 어떻게 해서든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만들었어야 합니다. 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는 다시 예산전쟁에 임한다는 엄중한 각오로 오색케이블카사업의 예산확보와 대응팀을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기존의 설악산오색삭도추진단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반드시 도민들의 실망을 희망으로 바꿔놓을 수 있도록 총력전을 펼쳐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위원회 활동

강 / 원 / 도 / 의 / 회

의회운영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임남규)는 11월 9일 제251회 정례회 운영위 제1차 회의를 열어 '제251회 강원도의회(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의결하였고, 11월 10일 운영위 회의를 열어 2015년도 의회사무처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

11월 24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강원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15년도 제3회 강원도의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의회사무처 당초예산안'을 심의·의결하였으며, '2015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였다.



위원회 활동

강 / 원 / 도 / 의 / 회

기획행정위원회

●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함중국)는 11월 10일부터 11월 20일까지 집행부 9개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감사에서 인재개발원에는 각 교육과정 별 설문결과에 제기된 문제점의 원인규명과 개선책 마련 등을 요구하였고, 총무행정관실에는 다면평가제 재검토와 중앙↔도↔시군 간 인사교류에 원칙있는 공정한 인사행정 등을 요구하였으며, 소방본부에는 소방헬기 구입 관련 국비확보의 소방공무원 및 의소대원들의 안전을 위한 장비 보강 등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감사관실에는 의회의 승인·의결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된 업무에 대한 감사 실시 등을 요구하였고, 강원도개발공사에는 알펜시아 부채상환과 운영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는 등 집행부 관련 부서에 대해 주도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였다.



위원회 활동

강 / 원 / 도 / 의 / 회

사회문화위원회

- 사회문화위원회(위원장 김금분)는 11월 9일 제251회 정례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최하여 집행부 관련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 11월 13일과 11월 18일에는 강원문화재단과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 현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11월 30일 제4차 사회문화회의에서는 이번 회기에 상정된 ‘강원도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 ‘강원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은 일부 문구 수정하여 의결하였고, ‘(재)한국여성수련원 운영비 지원 출연동의안’에 대해서는 원안의결 처리하였다.

12월 1일 제5차 사회문화위원회 회의에서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함께 ‘강원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원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의결하였다.



위원회 활동

강 / 원 / 도 / 의 / 회

농림수산위원회

-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권혁열)는 11월 10일 제251회 정례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최하여 집행부 9개 부서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 환동해본부에는 (주)강원심층수의 강원도 출자금 40억원 회수 등을 요구하였고, 강원도립대학에는 해양수산분야에 대한 특성화를 주문하였

으며, 녹색국에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국비확보 등을 촉구하였다. 11월 18일과 19일에는 춘천 가축위생시험소와 철원 인삼약초연구소, 흥천 자연환경연구공원, 강릉 수산자원연구원에 대해 현지감사를 실시하였다.

11월 25일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에서는 ‘강원도 어촌특화발전 지원 조례안’을 원안의결하였으며, ‘주식회사 강원심층수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주)강원심층수 출자 자본금 잠식에 따라 계류처리하였다.



위원회 활동

강 / 원 / 도 / 의 / 회

경제건설위원회

-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김규태)는 제251회 정례회 기간 중 6차례의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집행부 6개 부서에 대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4건, 2015년도 3회추경예산안 및 2016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의·의결하였다.

11월 25일 제2차 경건위 회의에서는 '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였고, 11월 26일 제3차 회의에서는 '강원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강원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의결 하였으며, 11월 30일 제5차 경건위 회의에서는 '강원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을 원안의결 하였다.



위원회 활동

강 / 원 / 도 / 의 / 회

교육위원회

- 교육위원회(위원장 이문희)는 제251회 정례회 기간 중 여섯차례의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강원도교육청, 17개 교육지원청, 14개 직속기관에 대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

교육위에 회부된 조례안 7건 중 '강원도 재단법인 강원교육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승복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의결하였고,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 조례안',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류하였다.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 2015. 11. 24 강원도의회 의장단 도청 별관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 빈소 헌화



- 2015. 12. 7 2018 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 현지 시찰(올림픽프라자 개·폐회식장)



- 2015. 12. 7 제251회 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 현지시찰



- 2015. 12. 10 강원도의회 분권특별위원회 주최 - 협동조합과 지역분권 발전 포럼



- 2015. 12. 15 강원 길 포럼



● 2015. 12. 15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



의원동정



▲ 김시성 의장은 11월 17일 KBS춘천방송국에서 열린 '강원건축문화제 개막식'에 참석, 12월 3일 춘천 베어스 호텔에서 열린 '강원중소기업대상 시상식'에 참석하였다.



▲ 김규태 경제건설위원장은 11월 5일 원주 호텔인터블고에서 열린 '제4회 강원지식재산 페스티벌'에 참석, 11월 25일 춘천 호반체육관에서 열린 '강원에코홈페어 개막식'에 참석하였다.



▲ 남경문 폐광지역개발촉진 지원특위위원장은 11월 9일 강원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5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에 참석, 11월 16일 원주권역 지역교육지원청에 대한 현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



▲ 김동일 부의장은 11월 4일 원주 제1군사령부에서 열린 '제17회 민관군 친선 체육대회'에 참석, 11월 20일 강원체육고등학교에서 열린 '2015 강원체육상 시상식'에 참석하였다.



▲ 이문희 교육위원장은 11월 9일 강원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5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에 참석, 12월 11일 횡성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창의공감 지원사업 성과보고회'에 참석하였다.



▲ 강청룡 도의원은 11월 6일 춘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제13회 춘천시민의 날 행사'에 참석, 11월 13일 KBS춘천에서 열린 '제76회 순국선열의 날 행사'에 참석하였다.



▲ 권석주 부의장은 11월 4일 원주 제1군사령부에서 열린 '제17회 민관군 친선 체육대회'에 참석, 11월 23일 춘천 베어스호텔에서 열린 '누리과정 강원도 사업보고회'에 참석하였다.



▲ 신영재 예산결산특위위원장 11월 7일 홍천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5회 홍천 다문화가족 한마음 축제'에 참석, 11월 14일 홍천 삼포권역 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린 '귀농귀촌 한마당' 행사에 참석하였다.



▲ 박영승 도의원은 11월 4일 원주 1군사령부에서 열린 '제17회 민관군 친선 체육대회'에 참석, 11월 9일 강원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5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에 참석하였다.



▲ 임남규 운영위원장은 11월 9일 강원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5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에 참석, 12월 1일 충남 부여에서 열린 '전국 시도 운영위원장협의회'에 참석하였다.



▲ 오세봉 2018 평창동계올림픽 지원특위위원장은 11월 3일 서울 올림픽파크에서 열린 '2018평창 동계올림픽성공개최다짐대회'에 참석, 11월 4일 홍천메디컬 허브 연구소에서 열린 '2016당초예산 안 사전 설명회'에 참석하였다.



▲ 김기철 도의원은 11월 4일 원주 1군사령부에서 열린 '제17회 민관군 친선 체육대회'에 참석, 11월 25일 정선 사회복지회관에서 열린 '통통 작은 음악회'에 참석하였다.



▲ 함종국 기획행정위원장은 11월 15일 횡성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16회 횡성군배 배드민턴 개회식'에 참석, 11월 18일 기행위 회의실에서 열린 '재난안전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



▲ 구자열 분권특위위원장은 11월 3일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을 방문하여 '공유재산'에 대해 현지시찰을 실시, 11월 13일 고성에서 열린 '강원도민 주민자치 실질화 세미나'에 참석하였다.



▲ 김기홍 도의원은 11월 7일 원주원예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열린 '제17회 치악산 배축제'에 참석, 11월 9일 강원도의회에서 열린 '제25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에 참석하였다.



▲ 김금분 사회문화위원장은 11월 3일 강원도청에서 열린 '2015강원여성대학 수료식'에 참석, 11월 4일 원주 1군수 지원사령부에서 열린 '제17회 민관군 친선 체육대회'에 참석하였다.



▲ 장세국 접경지역발전특위위원장은 11월 6일 화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제20회 화천군 농업인의 날' 행사에 참석, 11월 7일 춘천중앙초등학교에서 열린 '재춘 화천군민회 체육대회'에 참석하였다.



▲ 김성근 도의원은 11월 4일 원주 1군사령부에서 열린 '제17회 민관군 친선 체육대회'에 참석, 11월 9일 강원도의회에서 열린 '제25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에 참석하였다.



▲ 권혁열 농림수산위원장은 11월 9일 강원도의회에서 열린 '제25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에 참석, 11월 13일 춘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강원도 농어업대상 시상식'에 참석하였다.



▲ 이정동 장애인복지특위위원장은 11월 3일 강원도청에서 열린 '2015강원여성대학 수료식'에 참석, 11월 4일 원주 1군사령부에서 열린 '제17회 민관군 친선 체육대회'에 참석하였다.



▲ 김연동 도의원은 11월 9일 강원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5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에 참석, 11월 16일 원주권역 지역교육지원청에 대한 현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



▲ **김용래** 도의원은 11월 2일 강원도교육연수원에서 열린 '2015년도 학교운영위원 정책연수'에 참석, 11월 9일 강원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5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에 참석하였다.



▲ **심영섭** 도의원은 11월 3일 강릉 실내종합체육관에서 열린 '의용소방대 한마음전진대회'에 참석, 11월 4일 원주 1군사령부에서 열린 '민관군 친선 체육대회'에 참석하였다.



▲ **조영기** 도의원은 11월 2일 양구 문화복지센터에서 열린 '양구백자 학술 세미나'에 참석, 11월 18일 양구 문화복지센터에서 열린 '주민행복 아카데미'에 참석하였다.



▲ **김용복** 도의원은 11월 4일 원주 1군사령부에서 열린 '제17회 민관군 친선 축구대회'에 참석, 11월 9일 강원도의회에서 열린 '제25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에 참석하였다.



▲ **안상훈** 도의원은 11월 6일 춘천 요선동 상가에서 열린 '요선동 번영회 사무실 개소식'에 참석, 11월 25일 춘천 호반체육관에서 열린 '강원 에코홈페어 개막식'에 참석하였다.



▲ **진기엽** 도의원은 11월 3일 횡성 공근중학교에서 열린 '노인의 날 기념 어르신 효 축제'에 참석, 11월 6일 횡성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횡성 어르신 한마당 축제'에 참석하였다.



▲ **남평우** 도의원은 11월 10일 인제 어른초등학교에서 열린 '어른 끼 페스티벌'에 참석, 11월 23일 춘천 베어스 호텔에서 열린 '누리과정 강원도 사업 보고회'에 참석하였다.



▲ **오원일** 도의원은 11월 9일 강원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5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에 참석, 11월 16일 원주권역지역교육지원청에 대한 현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



▲ **최명서** 도의원은 11월 9일 강원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5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에 참석, 11월 30일 영월대학교에서 열린 '성탄트리 점등식'에 참석하였다.



▲ **박길선** 도의원은 11월 17일 원주보훈회관에서 열린 '제76주년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에 참석, 11월 18일 강릉원주대에서 열린 '강원지역 외국인 인권대책 토론회'에 참석하였다.



▲ **원강수** 도의원은 11월 4일 원주 1군사령부에서 열린 '제17회 민관군 친선 체육대회'에 참석, 11월 9일 강원도의회에서 열린 '제25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에 참석하였다.



▲ **최성재** 도의원은 11월 7일 원주 천사들의 집에서 열린 '천사장애인요양원 25주년 기념행사'에 참석, 11월 27일 원주종합체육관에서 열린 '2015드라마 페스티벌'에 참석하였다.



▲ **박윤미** 도의원은 11월 4일 원주 1군사령부에서 열린 '제17회 민관군 친선 체육대회'에 참석, 11월 9일 강원도의회에서 열린 '제251회 강원도의회 본회의'에 참석하였다.



▲ **유정선** 도의원은 11월 6일 춘천 파레스뷔페에서 열린 '북한이탈주민 불우이웃돕기 일일차집'에 참석, 11월 25일 춘천호반체육관에서 열린 '강원 에코홈페어 개막식'에 참석하였다.



▲ **최성현** 도의원은 11월 12일 춘천 호반체육관에서 열린 '2015년 그린박람회 개막식'에 참석, 11월 16일 춘천 스무썬성당에서 열린 '추수감사절 미사'에 참석하였다.



▲ **박현창** 도의원은 11월 5일 평창 봉평면 유포리 '지방도 424호선 개량사업 현장' 방문, 11월 25일 춘천 호반체육관에서 열린 '강원 에코홈페어 개막식'에 참석하였다.



▲ **이종주** 도의원은 11월 9일 강원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5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에 참석, 11월 16일 원주권역지역교육지원청에 대한 현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



▲ **한금석** 도의원은 11월 3일 강릉실내체육관에서 열린 '강원도 의용소방대 한마음전진대회'에 참석, 11월 4일 원주 1군사령부에서 열린 '민관군 친선 체육대회'에 참석하였다.



▲ **신도현** 도의원은 11월 13일 흥천 내촌면 체육공원에서 열린 '내촌면 새마을단체 김장나눔 행사'에 참석, 11월 30일 흥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흥천발전 심포지엄'에 참석하였다.



▲ **장석삼** 도의원은 11월 14일 양양 노인복지회관에서 열린 '사랑의 연탄나눔 운동발대식'에 참석, 11월 20일 양양문화복지회관에서 열린 '아름다운 동행학교'에 참석하였다.



▲ **홍성욱** 도의원은 11월 4일 원주 1군사령부에서 열린 '제17회 민관군 친선 체육대회'에 참석, 11월 25일 춘천 호반체육관에서 열린 '강원 에코홈페어 개막식'에 참석하였다.



▲ **심명곤** 도의원은 11월 5일 흥천메디컬허브연구소에서 열린 '2016당초예산 사전 설명회'에 참석, 11월 26일 원덕읍 임원현지에서 열린 '원덕수협 해양복합타운 준공식'에 참석하였다.



▲ **정재웅** 도의원은 11월 3일 강원도청 별관회의실에서 열린 '2015강원여성대학 수료식'에 참석, 11월 25일 춘천 호반체육관에서 열린 '강원 에코홈페어 개막식'에 참석하였다.

